

☞ 문화의 정의

‘문화’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문화는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담론적 개념이다. 서양에서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Cultus)에서 유래하였다.

즉,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한다. 자연 사물에는 문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인위적인 사물이나 현상이라면 어떤 것이든 문화라는 말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야생화 문화’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지만 ‘원예 문화’라는 말은 성립한다.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말이라 할 수 있고, 인류가 유인원의 단계를 벗어나 인간으로 진화하면서부터 이루어 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며, 이는 인간이 속한 집단에 의해 공유된다. 문화를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는 인류학의 관점이 이런 문화의 본래 의미를 가장 폭넓게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라는 말은 그렇게 넓은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문화에 대한 정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인간적 산물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역사적 시대, 사회 집단,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는 인간이 창조한 사회적, 역사적 산물을 두고 인간들이 벌이는 권력 다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권력 다툼이란 궁극적으로 문화를 둘러싼 다툼이기 때문이다.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

☞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각각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문화 상대주의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그 문화가 나타난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문화적 요인도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장규수, 『한류와 아시아류』

☞ 몽골의 게르



수천 년 동안 몽골의 유목민은 계절에 따라 초원 지역을 이동했다. 여름에는 메마르고 바람이 부는 강변 지역이, 겨울에는 강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산이나 언덕과 가까운 지역이 살기에 가장 좋다. 몽골에서 초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계절마다 최적의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국가적인 주거 형태인 몽골 ‘게르(Ger)’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초지에서 목축업을 하는 생활 방식 때문에 발명되었다. 게르는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벽과 기둥, 캔버스 천과 펠트로 덮은 둥근 지붕을 빗줄로 묶어서 만들었으며, 둥근 구조다. 게르는 몽골 유목민들이 운반하기에 가볍고, 분해·포장·조립이 쉽도록 유연하다. 또 여러 차례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며, 내부에서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 유네스코(UNESCO) 한국 위원회

☞ 다문화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첫째, ‘다문화’라는 개념을 ‘다문화 가족’ 특히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한 것으로만 한정 지어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 형성이 이른바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를 다양한 문화로 이해하지만 다양성을 주로 인종이나 민족으로 구분하여 다른 인종이나 민족이 지닌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셋째, ‘다문화’라는 개념을 이주의 현상으로 발생한 특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문화’의 개념 앞에 ‘다(Multi)’를 붙여 이해하는 경우이다. 즉, 일반적으로 문화의 개념을 ‘인간의 특정한 생활양식’이라고 이해할 때, 다문화는 민족이나 인종에 의한 구분뿐만 아니라 계층, 지역, 성, 직업, 연령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 천정웅 외, 『현대 사회와 문화 다양성 이해』

III 인종 차별

인종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골격, 피부, 모발 등의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로 구분한다. 하지만 ‘인종’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차별적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미 오래전에 극단적인 인종 차별주의는 퇴색되었지만 최근에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의 이주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다문화 가정과 혼혈 세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인종적·문화적 편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피부색이 다른 것은 차이일 뿐, 우열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전국 지리 교사 연합회, 『살아 있는 지리 교과서 2』

III 편견과 차별 관련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 인권 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구금·보호 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 채용 시험 및 승진 시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주요한 평가 및 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

•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

다누리란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多)’와 홈페이지의 우리말인 누리집의 ‘누리’의 합성어로 ‘다문화 가족 모두가 누린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다누리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교육, 취업, 임신과 육아, 상담실 등의 정보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청소년의 학교생활, 국제 교류,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

III 1인 가구 현황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천 가구이고, 연령대별 비중은 29세 이하 19.8%,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이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20.0%였으나, 2030년에는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후 OECD 주요국 중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의 1인 가구 비중은 30%를 넘었고 독일, 스웨덴, 핀란드는 40%를 상회한다.

1인 가구의 혼자 사는 주된 사유는 2020년 기준 본인의 직장 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 독립 26.2%, 가족 관련 사유가 17.0%로 그 뒤를 따랐다. 본인 직장 및 본인 독립 사유는 30~50대가 높았으며, 가족 사유는 50대 이상부터, 가족 사별 사유는 60대 이상부터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의 혼인 상태는 2020년 기준으로 미혼이 50.3%, 사별이 20.5%, 이혼이 16.1%, 배우자 있음이 13.2% 순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보도 자료, 2022. 12. 7.

III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

반려동물 사업이 식품 업계의 새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이 새로운 사회적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을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성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업계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반려동물을 위해 ‘지갑 열기’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 컨슈머타임스, 2023. 11. 15.